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0년 지식정보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0. 12.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목 차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연구회 개요 및 연구계획	1
2. 2020년 연구활동개요	3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4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5
1. 연구용역 추진	5
2. 현장방문	9
3. 지식정보 전문가 특강	15
4. 기획회의 등	16
III. 활동후기	20
IV. 언론보도	31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연구회 개요 및 연구계획	1
2. 2020년 연구활동개요	3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4

I -1. 연구회 개요 및 연구계획

☐ 단 체 명 : 지식정보연구회

☐ 소속의원 : 양리리(대표), 최원석(간사), 김해숙 의원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연구활동계획

단 체 명		지식정보연구회	
연구내용	주 제	지식정보격차 현황 및 진단	
	목 적	지식정보격차해소	
연구활동기간		2020년 3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연 구 활동비 책정액 (2020년)	총 액	금오백사십만원(금5,400,000원)	
	산출내역	- 행사비(전문가 강연 및 간담회) : 2,000천원 - 정보격차해소 우수사례 견학비용 : 1,400천원 - 연구결과 자료집 제작비 : 500천원 - 회의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 1,500천원	

☐ 설립목적

-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한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지식정보의 습득과 활용은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의 긍정적 효과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지식정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보격차의 현상 중에서도 장애유형별·국가별·연령별·지역별·계층별 정보격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주제

장애유형별·연령별·지역별 지식정보격차와 관련한 각종 법, 제도, 정책, 현장 등의 진단을 통해 그 한계와 발전 방향을 모색

□ 연구목적

- 장애유형별 지식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대안마련
- 화교 및 다문화인들의 지식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대안마련
- 어르신들의 지식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대안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격차 현황조사 및 대안마련

□ 연구목적

- 정보격차의 주체, 정보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격차의 범위 등으로 정보격차를 파악하고, 미진한 정보평등 실현 및 정보격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연구회에서는 다양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현지 조사 등을 병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료 및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거쳐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20년 세부 활동계획

- 서대문구 정보격차 현황과 관련정책을 검토하며, 관련분야 현장탐방 및 간담회 진행
- 전문가 강연, 토론회,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정책능력 배양
- 월간 계획

3~4월	지식정보연구회운영 사전준비
5월	월례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6월	월례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7월	월례회의, 토론회, 간담회
8월	월례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9월	월례회의, 토론회, 간담회
10월	월례회의, 우수사례 견학, 간담회
11월	월례회의, 전문가 강연, 간담회
12월	월례회의, 2020년 연구결과보고회

I -2. 2020년 연구활동개요

월	활동내역
4월	○ 4. 1.(수) 기획회의 ○ 4. 28.(화) 기획회의
5월	○ 5. 7.(목)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간담회 ○ 5. 14.(목) 기획회의
6월	○ 6. 2.(화) 이진아기념도서관 현장방문 ○ 6. 12.(금) 기획회의 ○ 6. 23.(화) 지식정보 전문가 특강(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7월	○ 7. 15.(수) 한국화교역사박물관 방문 ○ 7. 20.(월) 기획회의
8월	○ 8. 21.(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기획회의
9월	○ 9. 9.(수) 서대문구청 구정연구단 시민참여연구 집단심층인터뷰 및 기획회의 ○ 9. 23.(수) 서대문·은평구 보장구수리센터 현장방문
10월	○ 10. 12.(월) 기획회의
11월	○ 11.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11. 9.(월)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 ○ 11. 13.(금) 기획회의
12월	○ 12. 4.(금) 기획회의 ○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I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연구활동비 책정금액 : 금5,400,000원

☐ 지출금액 : 금2,309,900원(집행률 43%)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	적 요	사용처	지출금액	지출구분
1	04-01	3월 기획회의 간담회비	처갓집	60,000	업무추진비
2	04-28	4월 기획회의 간담회비	카텐	75,000	업무추진비
3	05-07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	로도텐드론	33,600	업무추진비
4	05-20	다문화,장애인 독서관련 관계자 간담회비	에썬하우스	26,500	업무추진비
5	05-21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비	맥널티커퍼팩토리	16,000	업무추진비
6	05-22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비	로도텐드론	23,500	업무추진비
7	06-12	6월 기획회의 간담회비	맥널티커퍼팩토리	54,800	업무추진비
8	06-23	정보공개 전문가특강 강사료	전진한	360,000	행사비
9	06-23	지식정보관련 전문가 간담회비	진보	207,000	행사비
10	08-21	연구용역 추진관련 관계자 간담회비	진보	291,000	업무추진비
11	09-09	구정연구단 간담회비	일화성	76,000	행사비
12	09-18	연구용역 추진관련 도서관관계자 간담회비	동해관	75,000	행사비
13	11-0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 간담회비	풍천백세장어	295,000	행사비
14	11-0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 차담회비	빈스앤와플	69,500	행사비
15	11-27	현장방문 현수막 제작비	북청사	44,000	행사비
16	12-04	활동결과보고서 제작비	노란들관	495,000	자료집제작
17	12-04	기획회의 간담회비	라온	108,000	업무추진비
합 계				2,309,900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5
1. 연구용역 추진	5
2. 현장방문	9
3. 지식정보 전문가 특강	15
4. 기획회의 등	16

Ⅱ-1. 연구용역 추진

□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편성 개요

- 2019.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항목 신설
- 편성목적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지원대상 :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동경비로 편성
 -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 계약업체 : (주)채인지(대표 : 양한순)
- 계약금액 : 금20,420천원
- 계약기간 : 2020. 7. 24.(금) ~ 11. 23.(월)

□ 과업목적

-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서대문구만의 차별화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수립
- 각종 행정기관 및 편의시설의 이용을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질적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
- 현황 조사 및 관련 선행연구자료 등을 반영하여 서대문구 정보취약계층 정책방향 등 중장기 세부사업 제안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대문구 전역
- 내용적 범위
 - 서대문구 지역주민 정보격차 기초현황 조사
 - 서대문구 주민의 계층적, 지역적 특성 및 정보 정책 수요 분석
 - 정보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내 참여와 적극적 역할 부여를 위한 방안 제안

-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의 목표 설정 및 핵심과제 제안

□ 과업의 대상

- 관내 정보취약계층
 - 1) 장애인
 - 2) 노년층
 - 3) 저소득층
 - 4) 다문화
- 관내 행정기관 및 편의시설 : 서대문구청, 도서관 등
- 관내 사업체 및 학교, 단체 등

□ 과업의 내용

- 서대문구 지역주민 정보격차 기초현황 조사
 - 지역주민 정보격차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및 대면 심층인터뷰, 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한 지역주민 정보격차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 제안
 - 대표적 정보취약계층인 다문화, 장애인, 노년층, 저소득층의 정보이용실태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제안
 - 관내 정보취약계층 주민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생활양식, 서비스 수요 등에 관한 조사
- 서대문구 주민의 계층적, 지역적 특성 및 정보 정책 수요 분석
 - 사회·경제적 여건 등 정보취약계층 관련 서대문구 지역적 특성 파악
 - 정보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 분석 및 지원 정책 수요 파악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커뮤니티화를 위한 유도 정책 제시
 - 정보활용 가능한 관내 도서관, 구청 등 현황파악 및 관내 지역의 디지털정보 리터러시를 위한 이동정보센터 등 활용방안 제시
- 정보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내 참여와 적극적 역할 부여를 위한 방안 제안
 - 관내 정보취약계층 주민의 네트워크, 사회참여 현황, 특징 및 문제점 파악
 - 지역사회 내 참여도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의 목표 설정 및 핵심과제 제안

- 기존 서대문구 정보격차 해소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안
- 서대문구 정보취약계층 실태 분석을 반영한 서대문구 지원 정책의 근본적 목표, 전략 설정 및 핵심 과제 개발
- 지역사회 내 정보취약계층의 참여 활성화 및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서대문구 및 기타 유관기관의 역할 제시
- 서대문구 특성을 반영한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사회 내 소통 활성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과업수행과정 : 착수보고회

○ 일 시 : 2020. 8. 21.(금) 10:00~11:3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2층)

○ 용역관련 의원제언

- [박경희 의장]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가 최초로 편성됨에 따라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회 소속 의원 및 계약업체에 노력 당부
- [양리리 의원] 남원시의회 정보격차 정책연구회의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요청

주민역량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를 하였다면, ‘어떤 정보’ (주민과 밀접한 내용인 세금, 부동산 등)를, 어떻게 구의회가 역할을 할지를 연구해주시길 당부. 쌍방향소통의 중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다.

양적연구는 다른 곳에서도 하지만 질적연구에 중심을 둔 것에 대해 동의한다.

→ [용역업체] 정보격차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치로 표출되기는 쉽지 않다. 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는 있다.

- [최원석 의원] 질적인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구체화했으면 한다
취약계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다. 정량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우리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 [안한희 의원] 비슷한 생활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구나 인근 자치구와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 개최사진



□ 과업수행과정 : 중간보고

- 일 시 : 2020. 11. 09.(월) 17:00~18: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2층)
- 용역 중간보고 주요내용
 - 부제 : 서대문구 정보공동체 활성화와 의회의 역할
 -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을 대상으로 한 양적데이터(총98명 설문조사), 질적데이터(50명 인터뷰) 수집결과 보고
 - 통합분석 결과보고 및 정책방향 제시
- 개최사진



□ 과업수행과정 : 최종보고

※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는 별도 자료집 참조

II-2. 현장방문

이진아기념도서관 현장방문

☐ 일 시 : 2020. 6. 2.(화) 10:00~13:00

☐ 장 소 :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독립문공원길 80)

☐ 방문목적

- 양질의 자료, 최첨단 디지털 정보체계를 갖춘 서대문구의 거점도서관인 이진아기념도서관을 방문하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사항과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개선에 대해 점검하고자 함

☐ 방문의원 : 4명(박경희, 양리리, 최원석, 김해숙 의원)

☐ 도서관 일반현황

- 개 관 일 : 2005. 9. 15.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대지 757㎡, 연면적 2,765㎡
- 층별시설현황

구분	주용도
지하1층	다목적실, 보존서고, 직원식당
지상1층	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안내데스크
2층	어울림누리터(전자정보열람실,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자료실), 문화강좌실(문화사랑방, 도예공방)
3층	종합자료실, 문화강좌실(무한상상실, 문화창작실), 수유실, 휴게실
4층	종합자료실, 명예관장실, 사무실

- 직원현황 : 24명(사서 13명, 행정 11명)
- 소장자료 현황 : 도서 156,441권, 비도서 11,074점

☐ 도서관 운영현황

- 코로나19 휴관에 따른 도서관 대응
 - 비대면 전자책/스마트 도서관 대출서비스
 - 도서예약 안심대출 서비스 시행(전일 신청한 도서를 익일 도서관 입구에서 대출)
 - 휴관기간 동안 환경개선 조기 시행, 주1회 이상 시설 내부 방역, 폐기도서 처리

○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사업

-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 운영(특화서비스 개발)
- 지식정보취약계층 현황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질적연구 조사기관 연구사업)
- 언어권별, 장애유형별 도서관 이용 홍보물 제작
- 노인, 장애인, 다문화인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7~12월)

□ 간담회 주요내용

-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해야하는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서대문도서관에서 안산자락길에 조성한 야외도서관과 같이 주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발굴해내야 할 것임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이진아기념도서관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계층별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 매년 9월 도서관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중계 등의 방식 등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다

□ 견학사진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

☐ 일 시 : 2020. 11. 9.(월) 10:00~13:00

☐ 장 소 : 서대문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가로 244, ☎322-7595)

☐ 방 문 자 : 의원8명(박경희, 이종석, 안한희, 양리리, 최원석, 김해숙, 유경선, 김양희 의원), 집행부(아동청소년과장, 출산다문화팀장), 사무국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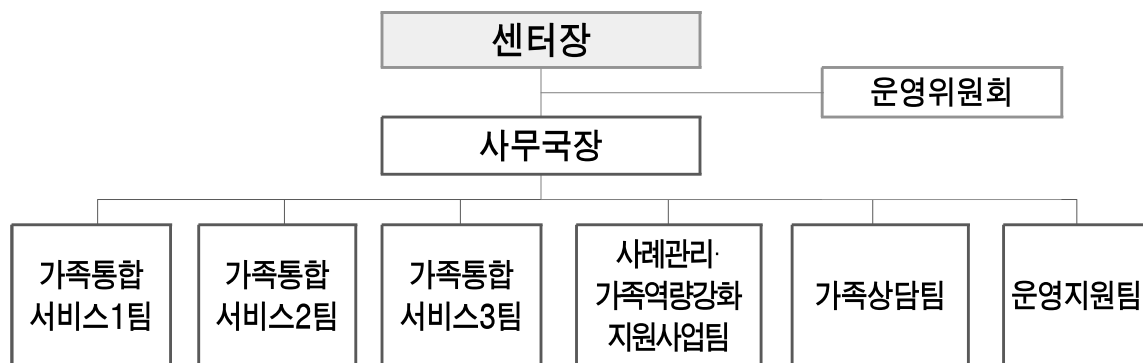
☐ 방문목적 : 지식정보연구회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현황 및 과제를 파악

☐ 세부일정

시간	일정	비고
10:00~10:10	센터 시설견학	센터장
10:10~11:10	시설현황·운영에 관한 질의응답	센터장
11:20~13:00	간담회 및 차담회	

☐ 기관개요

- 시 설 명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운영법인 : 학교법인 이화학당(대표자 : 강주현)
- 센터 조직도



- 주요사업 : 가족관계 지원서비스,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가족생활 지원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지원 별도사업(자녀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한국어교육), 서울시 지원사업(서울가족학교, 1인가구지원사업)

- 통합서비스 기관 지정 : 2016.1.부터
- 센터운영현황

구분	위치	비고
1센터	증가로 244, 2층	센터총괄
2센터	통일로27길 19, 홍제1동자치회관 2층	가족통합서비스1팀, 임신출산갈등상담
3센터	연희로32길 48, 연희성원아파트 관리동 2층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 간담회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의 국적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 주로 베트남, 중국이며, 일본,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다양하다
- 가족상담사업 중 이혼전·후 가족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혼을 고민하는 주된 원인이나 상담현황은 어떠한지?
→ 숫자로 보면 10명 이내로 많지 않지만 내국인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담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 사례도 있다. 주요 원인으로 본다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비롯되는데 가정폭력, 시댁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가 있었다.
- 위기관리가정은 어떤 경로로 파악하고 있는지?
→ 구청 통합사례관리대상 또는 경찰서를 통해 연계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쉽게 알아서 찾아오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구청이나 교육청, 인근 학교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부족하고, 지리적으로도 찾아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가족관계지원사업 중 ‘아버지역할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아버지역할 강화프로젝트 등의 사업은 효과도 크고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상황은 어떠한지?
→ 아버지역할 지원은 한 달에 2회 정도해서 30가정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센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조모임도 운영 중이다.
- 시설이용자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혜자가 한정되지 않도록 구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야 앞으로

어떠한 시설과 지원이 필요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센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사례관리사가 2명 활동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상담봉사자가 15명 활동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 냉천동에 국민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를 2023년 이전을 목표로 건립중이다.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교류소통공간을, 4층~6층에 상담실, 교육실, 가족친화문화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센터사업비가 주로 여성가족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혜가족을 발굴하고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구비편성이 필요하다.

☐ 방문사진



서대문 · 은평구 보장구수리센터 현장방문

☐ 일 시 : 2020. 9. 23.(수) 14:00

☐ 장 소 : 햇살아래 보장구수리센터(서대문구 통일로32길 6, 1층)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은평구 서오릉로 19)

☐ 센터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및 청소(세척), 대여
- 사업대상 : 보장구를 소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착순)

☐ 방문목적

- 센터시설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인력, 운영현황 등 점검



한국화교역사박물관 방문

☐ 일 시 : 2020. 7. 15.(수) 10:00

☐ 장 소 : 한성화교중고교 한국화교역사박물관 (연희로 176)



1948년 개교한 서울시에 위치한 유일한 화교중고등학교로, 학교 내 한국화교역사박물관을 개관하여 화교문화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역사인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Ⅱ-3. 지식정보 전문가 특강

□ 일 시 : 2020. 6. 23.(화) 10:00~12: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강의주제 :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이해

□ 강 사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경력 사항	- (협동조합) 알권리연구소 소장 - 前,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現,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 - 現,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 - 現, KBS 시청자위원 (2018.9.~)	
저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아이의 미래는』 다림출판사, 2018 『대통령 기록전쟁』 한티재출판사, 2016 『투명사회 정보도시』 한울출판사, 2013	

□ 강의내용

- 의원의 역할에서 현 실태 및 제도 검토를 위해 정보 및 기록의 파악이 가장 중요
- 정보공개역의 역사, 정보공개청구 사례 분석
- 전국 기록물 관련기관 소개(서울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증평군 아카이빙프로젝트)
- 기사를 통해 보는 정보공개 관련 이슈

□ 강의사진



Ⅱ-4. 기획회의 등

구청 구정연구단 집단심층인터뷰

- ☐ **인터뷰일시** : 2020. 8. 26.(금) 15:00~17:00
- ☐ **요청주체** : 서대문구청 구정연구단(단장 : 정연경)
- ☐ **인터뷰목적** : 〈서대문구 시민참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관련 시민참여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설문결과 진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집단심층인터뷰(FGI)
- ☐ **주요 인터뷰내용¹⁾**
 1. 민선 7기 이후 방침에 의한 시민참여가 늘어난 이유
 - 공청회, 정책간담회 등이 전무함. 최소한의 의견수렴 창구, 정보제공 등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 함
 2. 참여자의 중복성 관련 의견
 - 중복성 관련해서 너무 오랫동안 비슷한 사람이 많음. 참여의 숙성도는 높아짐
 - 중복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참여의 환경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대다수 직장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참여방법으로 온라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 참여를 구분하여 모집하는 방안 필요
 -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 필요. 주민들은 공무원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의 변화 필요
 - 주민참여관련 행정조직에는 인사평가 피드백을 확실히 줘야 함. 성과보상이 필요
 - 협치라인과 관리라인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안임
 -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 필요. 본인이 주민 몇 명과 이야기를 했는가를 참여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함
 - 사업별로 홍보 및 정보제공, 설명회,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이 의무화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4. 참여자의 자질 및 역량 향상 방안
 - 행정, 의회, 일반 주민 각자의 역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필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1) 지식정보연구회와 순차적으로 진행한 내용을 구정연구단에서 취합한 자료임

5. 숙의 강화방안

- 참여하는 분들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 전체가 숙의할 수 있는 과정 필요
- 집단지성이 필요한 숙의형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짧음. 참여예산도 사업의 질이 문제임

6. 참여자의 역할과 관련 의견

-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한 들러리가 많음
- 주민들이 의제발굴에는 참여하지만 집행부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많음

7. 공무원들이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이유

- 참여하신 분들은 현장중심의 참여를 경험하고, 공무원들은 단어로 참여를 접근함
- 서대문구의 경우 반대민원에 대한 저항력이 필요. 반대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숙의 조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모델을 만들어야 함

8. 기타의견

- 시민참여의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서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점이 다름. 사업 참여를 했던 분과 안한 분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조례 관련해서 은평구와 같이 행정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음
- 공익활동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지만 지역에 시민사회가 별로 없음. 새로운 활동가 양성과 관련해서도 고민해야 할 지점임

□ 간담회 사진



기획회의

☐ 기획회의 개최실적 : 총 10회

☐ 주요 논의내용

일시	논의내용
4. 1.(수)	- 연구회 명칭 변경 논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견) - 연구회 연간활동계획 공유 - 연구회 연구활동 홍보논의(비소속의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4.28.(화)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발주 논의(주제, 과업내용 등) - 국내 우수사례 탐방계획 논의 : 공주 기적의 도서관 → 추후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취소
5.14.(목)	- 연구용역 실시여부 논의 연구목적, 방법, 결과에 따른 정책 연계방안 등
6.12.(금)	-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발주내역 공유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 전문가 특강 일정 논의 : 6.22. 전진한 소장
7.20.(월)	-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반영내용 논의 - 소속의원별 관심분야 및 연구심화내용 공유
8.21.(금)	- 착수보고회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 설문조사대상 추천(공무원, 복지시설, 센터 등)
9. 9.(수)	- 기초의회에서의 의정연구단에 대한 논의 (서대문구청 구정연구단의 인터뷰 이후 서대문구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기능을 수행할 연구단의 필요성 논의)
10.12.(월)	- 하반기 현장방문 대상지 및 전문가특강 논의 (구로구 다문화센터, 이흥용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장 등)

일시	논의내용
11.13.(금)	- 연구용역 중간점검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성과공유 및 2021년 예산반영에 대한 건 논의
12. 4.(금)	- 2020년 연구회 활동보고 및 성과공유 - 2021년 연구회 연구활동계획 및 세부적인 활동방안 논의

□ 사진



Ⅲ. 활동후기	20
---------------	----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양리리 의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은 송두리째 변화되었다. 사회와 격리된 일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더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 신체적 · 경제적 · 문화적 제약이 큰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같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은 심리적 소외와 불안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그들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것이 되었다.



구정연구원 집단심층면접



전문가특강

이러한 상황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욕구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심리적 평안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민선 7기 서대문구는 ‘복지 서대문’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 중이다.

누구나 제약 없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2017년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는 3개의 종합복지시설, 21개의 장애인 복지시설, 11개의 아동-청소년 시설, 2개의 여성복지 시설, 3개의 공공도서관, 14개의 공립 작은도서관, 1개의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복지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지원 속에서 서대문구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보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구의회의 역할을 찾기 위해 본 연구회는 활동하였다.

서대문구 장애인은 서대문구 구민의 약 3.9%를 차지한다. 그 동안 서대문구의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과 활동에 기반을 둔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반해 장애인들의 문화, 교육, 정보 등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서대문구 사회조사 관련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여가 및 편의시설은 복지관, 수화통역/점자도서관, 심부름 및 이동지원서비스이다.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의 제공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관이 없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의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응답자의 25.3%가 복지서비스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일자리(취업)정보, 건강 정보, 장애관련 정보, 교육 및 학업정보, 뉴스정보, 법규 및 비자,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2019년 복지대상자 현황 및 변동추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노인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구의 노인인구 비율(16.6%)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중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긴급히 확충되어야 할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는 1순위 ‘일자리 및 취업지원’, 2순위 ‘노령연금 등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긴급히 확충되어야 할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 1순위로는 취업시설(시니어클럽, 취업알선센터), 2순위 교육시설(노인교실, 노인학교)로 나타났다.

서대문구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추진내용은 사회통합, 독거노인지원, 정보안내, 서비스연계, 공동체조성, 문화예술교육서비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의 노인정책은 노인의 욕구문제 해결과 소득지원, 사회활동참여 활동에 기반을 둔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되었고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노인들의 문화, 교육, 정보 등 도서관 이용과 정보활용능력 증진정책은 미흡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정보안내, 서비스연계, 공동체조성,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등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교육시설 (노인교실, 노인학교)’ 이 제시된 점은 앞으로 구의회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다.

2019년 서대문의 다문화가구는 서대문구 총가구의 1.36%인 1,753 가구이며, 가구원 수는 5,053명으로 서대문구 인구의 1.56%에 이른다. 서대문구의 다문화가구와 가구원 수는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서대문구의 외국인 주민 인구는 18,179명으로 이는 서대문구 인구의 5.6%로, 서울시 평균인 2.8%의 두 배에 해당한다.

서대문구의 다문화 현황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화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는 한성화교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화교가 가장 많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 화교로 추정되는 서울시의 대만국적자 8,687명의 27%인 2,316명이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화교의 가족과 귀화자 등을 고려하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실제의 화교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대문구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구의 어려운 점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자녀교육(42.9%)이었으며 복지욕구 또한 자녀학습지원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해결할 일자리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서대문구의회는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와 같은 정보

소외계층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진아기념도서관 현장방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

장애인, 다문화, 여성, 도서관을 대변하고자 ‘비레’ 구의원이 되었다. 지식정보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존재하나 보이지 않고, 소리내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연구회초기 세웠던 계획처럼 적극적인 외부활동을 할 수 없었다. 참으로 아쉽다. 2021년도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른 연구회활동 방안은 수정되어야겠지만, 연구회 설립목적에 부합된 활동을 이어나가야겠다.

삶을 살아갈 힘을 키우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최원석 의원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1년간 151만명이 넘어서고 있다(2020.12.5.작성기준)

우리나라도 일일확진자가 540명이 넘었고 서대문구도 예외 없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온 세계가 공포로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위의 지식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정보취약계층은 생활과 생존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의원이 되기 전 학교에서 안전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30여년을 안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서대문구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고민과 번뇌로 소외계층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던 중 얼마 전 우리 동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며 소개하신 분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누구도 이 가정에 관심을 두지 않아 외부와 두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특히 그 가정에는 방법이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물론 눈이 오는 매서운 추위에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등 아주 작은 것부터 개선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만 도움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디에다 토로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정보교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와서 깨닫게 된 것에 창피할 정도로 그 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서대문구 저소득층 변화추이를 보면 2018년 6,764가구 8,820명, 2019년 7,104가구 9,235명, 2020년 7,613가구 10,053명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그분들에게 지식정보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의 지원과 자활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계층에게도 정보복지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지원 속에서 지식정보소외 계층의 정보이용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정보서비스의 수준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구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지식정보연구회는 활동하였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



이진아기념도서관 현장방문

서대문구가 저소득계층의 복지와 자활의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추진 내용은 그분들이 사회통합에 함께할 수 있는 것과 취업에 필요한 지식정보안내, 일자리 알림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서대문구의 저소득계층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자활활동에 기반을 둔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안내, 서비스연계, 공동체조성과 교육 서비스 등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의 저소득층 가구는 전체 인구의 3.2%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징으로는 주거, 의료, 생계, 교육의 순으로 이것을 고려하면 그분들은 주거에 대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것을 활용하여 서대문구의회는 무조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듯, 정보소외계층 지원정책에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치

해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지식정보연구회의 첫 연구활동 해로, 관내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센터 현장방문으로 새롭게 알게 된 센터 운영의 열악함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 혜택받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 고민할 터

김해숙 의원

생각해 보면 벌써 10여 년 전 얘기다.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께서 수시로 119 신세를 지며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시절이다. 나는 당시 직장생활로 바쁘고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받아야 하던 그 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는 낮에 출근을 하더라도, 저녁에는 병원 잠을 자며 간병하면서 어찌 견뎌볼 수 있었는데 막상 퇴원을 하시면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깊게 고민하던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아이가 신청하면 집에 도와주시는 분이 오는 서비스가 있다고 그것을 신청하자고 했다. 사전정보가 없던 나는 선뜻 믿지 못했다. 당시 어머니는 약간이나마 재산이 있었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들도 있어 국가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신청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딸아이는 직접 다니면서 장기요양 보험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얼마간의 절차와 시간이 지난 후 기적처럼 장기요양보호사가 우리집에 왔다.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아주 작은 비용으로 환자용 침대, 휠체어 등을 빌릴 수 있었고, 소모품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었다. 어머니는 물론 가족 모두 너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진아기념도서관 현장방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방문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그 때 내가 느낀 커다란 아쉬움은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미리 그런 서비스가 있음을 친절하게 알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찾동 등 복지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으로 많이 진화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생활에 바쁜 많은 사람들이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정보가 없어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들이 내가 지식정보연구회에 활동을 같이하자는 권유에 선뜻 뜻을 같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예전부터 지식과 정보가 권력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니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평평해 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생계에 바쁜 정말로 취약한 계층에게 삶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구정연구단 집단심층면접

안내해 주는 정말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단체로 활동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였다. 10여년 전의 기억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때 다니던 나의 사무실에서 당시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한국 생활에 더 소통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좋은 아이템으로 다문화이주여성에게 다가가기 위해 여러 지역의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이주여성을 만나려 하였으나 대다수의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이주여성과의 접촉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였다. 그래서 소규모의 민간 다문화상담센터 등을 통해 현장으로 찾아가서 다문화이주여성들을 만나 공모사업을 완수한 적이 있다.

다문화이주여성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문화이주여성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많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각 지역의 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

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곳저곳 협찬한 수준 높은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누구나 가서 접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일이었다. 하지만 다문화이주여성 상당수는 좋은 프로그램 보다는 경제활동을 원했고, 다문화센터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다문화이주여성 모시기가 쉽지 않아,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들으려면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들어야한다든지 패키지로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 프로그램을 누려야 할 다문화이주여성이 귀하다보니 아무리 명분있고 유익한 사업이어도 다문화이주여성들은 선뜻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 느낀 점은 한국에 정착하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의 편차가 너무 심하여, 프로그램과 정보를 과하게 혜택을 받는 분들도 소수 있지만, 대다수 이주여성들은 경제활동에 바빠 좋은 프로그램과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명 한 명 이주여성들과 만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뭘까,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을 내 조국으로 인식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깊은 고민을 했었다. 이 또한 내가 구의원으로 지식정보연구회에 함께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다시 10여년 전 나의 어머니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당시로 기억을 돌이켜보면, 장기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으로 방문을 해주니, 낮시간에 돌보아 주실 분이 계셔서 좋았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제 시간에 와서 근무하는지, 혹시 수급자가 부정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지 자주 확인하였다. 내가 그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고 고생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아니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더니 막상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뭔가 더 서비스를 주려는 노력은 없고, 뭔지도 모를 서류에 엄청나게 서명해야 했고, 가끔 조사도 받았다. 정말 정상적으로 수급을 잘 받고 있는데, 집으로 와서 조사를 받을 때면 내가 잠재적부정수급자로 취급받는 듯해서 뒷맛이 씁쓸했다.

미리 찾아서 알려주지는 못할망정 찾아서 서비스를 받으니 그런 대접이라니. 그래도 그런 서비스를 받으니 좋아서 지시하는대로, 또 조사하는대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팝업이 많이 올려져 있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여는 순간 아하, 보건복지부는 복지 수요자를 찾아 수급혜택을 주는 곳이 아니라,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에 너무나 많은 행정력을 쓰고 있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왜 미리미리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알아내서 찾아서 누리는 복지 서비스도 다시 한 번 의심하고, 주는데 왜 이리 인색할까?

이 또한 내가 지식정보연구회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구의원이 돼서 보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늘 대기자가 너무 많다.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시설은 한정되어 있다. 역시 내가 사는 동네의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이 잘 한다고 소문이 나니, 다니고 있는 원생수보다 대기자수가 훨씬 더 많다. 동네 어린이집의 절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지난해 이맘때 개소식을 가진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다. 생기자마자 정원을 채우고 또 다시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는 것이다. 시설에 대한 욕구도 끝이 없다. 모두 좁다고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고,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 질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없어 이 또한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층, 다문화 등 수요는 아주 많고 무궁무진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급한 곳이 어디인지, 또 어느 곳이 가장 수요가 많아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곳인지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인색하고 의심부터 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먼저 알려주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꿈꾸어 본다.

IV. 언론보도	31
-----------------------	-----------

□ 주요 보도내용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이진아 도서관 간담회 가져

2020년 6월 23일



- 정보 불평등 없는 서대문구 만들기 위해 연구 이어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 함께 논의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대표의원 양리리)는 지난 2일(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 중인 이진아 도서관을 찾아, 관계자와 심층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내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특별 면담 시간을 가진 것이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성별, 연령, 지역, 계층별 지식정보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해소 방안을 찾고자 양리리 의원을 중심으로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 최원석 의원 등 3인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술 이진아 도서관장과 관계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양리리 대표의원과 김해숙 위원장, 최원석 의원 뿐 아니라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도서관 휴관 현황과 이에 따른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재개관 준비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연구회가 정보 접근 용이성과 정보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만큼,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주는 장소를 넘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정보가 공유되는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이진아도서관이 준비 중인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한 방향 설정 방법부터 프로그램 운영, 환경 개선 사업 까지 상세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은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 사이 스마트 도서관과 안심 대출 서비스 등을 위해 노력해 준 도서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이 공공성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시에 고려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식정보연구회가 앞장서 지원하겠다.

市政新聞

2020년 06월 25일
15면 (자치의정)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이진아도서관 현장 방문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좌측 첫 번째), 박경희 운영위원장(좌측 두 번째),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우측 두 번째), 최원석 의원(우측 첫 번째)은 최근 코로나19로 운영을 잠정 중단 중인 이진아도서관을 찾아 관계자와 심층 간담회를 가진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성별, 연령, 지역, 계층별 지식정보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해소방안을 찾고자 양리리 의원을 중심으로 김해숙 위원장, 최원석 의원 등 3인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사태로 관내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 되면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7월 09일

市政新聞

2020년 07월 09일
17면 (자치의정)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정보공개 특강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대표의원 양리리)는 최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강연을 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강 현장에는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과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 최원석 의원,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안한희 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 정보공개에의 개념과 법률적 해석,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
- 정보 불평등 없는 서대문구 만들기 위해 연구 이어가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대표의원 양리리)는 지난 6월 23일(화)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 강연을 열었다.

지식정보연구회는 투명한 정보공개에 위한 현장 연구와 동시에 지식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와 교육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은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교육인 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개념과 법률해석,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정보공개 중요성 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을 초청, <민주시민의 가장 큰 무기, “정보공개”>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전진한 소장은 현재 ‘(협동조합) 알권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위원’과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으로 정보공개 관련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특강 현장에는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과 김해숙 위원장, 최원석 의원 뿐 아니라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과 안한희 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전진한 소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현 시대에 정보가 가진 가치와 의미,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역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가 실생활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렸다. 특히 구의회와 구의원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와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각종 현안과 고민들을 함께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지식정보연구회 의원들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정보공개를 활용해 정책을 개발하는 방안과 코로나시대에 따라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 등도 논의했다.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은 “공개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며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정보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지역의 중심언론

西部新聞
www.seobunews.co.kr

2020년 9월 14일

지식정보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서대문구의회,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조사나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박경희 의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대표의원 양리리)는 지난 21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지식정보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성별, 연령, 지역, 계층별 지식정보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해소 방안을 찾고자 양리리 의원을 중심으로 김해숙 의원, 최원석 의원 등 3인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주제는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질적조사'로 주민들의 연령별,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는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특히 읍·초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 등 지식정보연구회의 활동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자 했다.

이번 연구용역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

면, 질적조사 전문업체인 採人智(채인지)에서 진행하며 주요 연구는 심층면담과 인터뷰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층면담은 연령별, 계층별 주민 40명을 선별해 1:1로 진행하고, 의회/구청/자치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실시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지식정보에 대한 서대문구민의 특성을 파악하는 물론 정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확립하는 기초를 닦을 예정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복지 서비스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이에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주요 연구목적과 과업 수행 내용, 전체 일정 등을 공유한 후 물론 박경희 의장과 지식정보연구회 의원들이 개별 의견 등을 자유롭게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희 의장은 "구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 역시,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석 의원 역시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연구회의 목표인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지식정보를 얼마나 습득하고 있고 격차는 어떤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만큼 이번 연구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지식정보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로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 등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를 통해 우리 연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우측 네 번째)은 최근 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지식정보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 양리리 대표의원,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최원석 의원 등 관계자들과 파이팅 하고 있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정보 공유 중요 성과 성별, 연령, 지역, 계층별 지식정보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해소방안을 찾고자 양리리 의원을 중심으로 김해숙 의원, 최원석 의원 등 3인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다.

(15.0*9.9)cm

전국매일신문

2020-09-02 (수) 009면

서대문구의회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연구용역 착수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 지식정보위원회(대표의원 양리리)는 최근 의정연구실에서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성별, 연령, 지역, 계층별 지식정보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그 해소 방안을 찾고자 양리리 의원을 중심으로 김해숙, 최원석 의원 등 3인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주제는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질적조사'로 주민들의 연령별,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게 된다.

연구용역을 맡은 질적조사 전문업체인 채인지(採人智)는 심층면담과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심층면담은 연령별, 계층별 구민 40명을 선별해 1:1로 진행하고 의회·구청·자치센터 실무자 대상 인터뷰도 실시한다.



서대문구의회는 최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지식정보위원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서대문구의회제공)

연구회는 이같은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지식정보에 대한 서대문구민만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정보복지 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회 양리리 대표의원은 "이번 연

구는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제점 등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연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신애'와 '인화'로 함께 가야 할 신문

西大門自治新聞

지식정보연구회, 정보 격차해소 위한 연구용역

2020년 9월 10일

구민 정보격차 현황 연구, 지역특성 파악하고자

서대문구의회 지식정보연구회(대표의원 양리리)는 8월 21일 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지식정보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식정보연구회는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성별, 연령, 지역, 계층별 지식정보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해소 방안을 찾고자 양리리 의원을 중심으로 김해숙 의원, 최원석 의원 등 3인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주제는 “서대문구 주민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질적 조사”로 구민들의 연령별, 계층별 정보격차 현황을 알아보는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특히 올 초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 등 지식정보연구회의 활동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자함이다.

이번 연구용역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질적조사 전문업체인 採人智(채인지)에서 진행하며 주요 연구는 심층면담과 인터뷰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층면담은 연령별, 계층별 구민 40명을 선별해 1:1로 진행하고, 의회/구청/자치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실시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지식정보에 대한 서대문구만의 특성을 파악함은 물론 정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확립하는 기초를 닦을 예정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복지 서비스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이에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주요 연구목적과 과업수행 내용, 전체 일정 등을 공유함은 물론 박경희 의장과 지식정보연구회 의원들이 개별 의견 등을 자유롭게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희 의장은 “구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 역시,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석 의원 역시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연구회의 목표인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구민들이 지식정보를 얼마나 습득하고 있고 격차는 어떤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만큼 이번 연구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